



3면

“코로나 벗어날 상황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 전주매일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음 1월 11일) 제27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가동 준비

전북도, 전국 최초로  
자문단 방문 운영  
현장답사 통한 후보지 대상  
생활 속 거리두기 고려  
선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자문단을 활용한 사전 현장점검으로 백신 예방접종센터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전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도내 14개 시·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후보지에 대해 전국 최초로 예방접종센터 설치 전 자문단을 구성해 방문 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운영은 독감 예방접종과는 달리 접종기관, 백신종류, 예약을 통한 접종실시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백신 접종상황을 인지해 접종센터 구축 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선정기준 준수여부는 물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자문을 실시했다.

상담은 현장답사를 통해 각각의 후보지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한 ▲충분한 면적 확보, ▲자가 발전과 냉난방, ▲환기시설 구비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선정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 봐도 봐도 신기한 마이산 쌍둥이 역고드름

지면서 5개의 정화수 그릇에서 역고드름이 자라났다. 해마다 이곳에서는 역고드름이 길이 5~20cm 가량으로 만들어졌다. 한 그릇에 하나씩 피어나는 현상은 매년 나타났지만, 한 그릇에 2개가 동시에 솟구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울러, 접종센터는 ▲선택권이 없는 4종류의 백신, ▲예약을 통한 접종, ▲백신종류에 따른 접종횟수·간격, ▲환기시설 구비 등 ▲교령자·장애인, ▲도·농 특성, ▲교통편의 제공 방안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모의실험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끔 자문했다.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반장인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

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철저한 준비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 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수산분야 교육

전북도, 올해 기초·전문 과정 운영... 17개 과정 내달부터

항상 교육, ▲안전한 수산물 생산 교육, ▲정예인력 양성 및 현장 교육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기존에 집합교육으로 진행한 수산 전문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번 교육은 어업인 스스로가 콘텐츠를 선택하고, 교육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촌 진입장벽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산 전문가와 1:1 맞춤형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산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어촌지도자 교육 등을 운영해 미래 수산 전문인력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산 분야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산 분야 고급인력 육성을 위한 어업인 교육'을 운영해 도 수산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외부 강사 초청 및 선진지 현장 견학 등 선진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

공해 지난 2019년에는 2,709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어업인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실시한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교육'은 어선이나 낚시어선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선박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로 안전 문화 정착 유도에 성과가 있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어촌현장 이동상담실 운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추진 목표 아래 관계기관 합동 지도·홍보 교육으로 현장 어업인 목소리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야심 차게 실시되는 교육이라 어업인들의 기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성 기자

## 미래형 에너지 저장장치 제작 연구기술 '주목'

전북대 구민국 대학원생, 화학연구원과 공동 연구  
미래 핵심소재 '불소계 폴리이미드 필름' 활용  
에너지 분야 해외 유명 학술지 표지논문 선정되기도

전북대학교 구민국 대학원생(반도체 화학공학부 석사과정·지도교수 김성곤)이 미래형 에너지 저장장치인 고성능 슈퍼커패시터를 만들 수 있는 연구기술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스와되며 수많은 미세 기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미세 기공들에 의해 정극 표면의 면적이 기존 연구에 비해 크게 향상됨에 따라 높은 성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구 대학원생은 설명했다.

이는 미래형 슈퍼커패시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큰 비표면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사물 인터넷(IoT) 또는 휴대용/웨어러블 장치용 무선 센서노드와 같은 자율 저전력 전자 장치에 사용될 수 있어 이러한 응용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민국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에너지 저장장치보다 월등히 향상된 성능으로 슈퍼커패시터의 단점인 낮은 에너지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은 기술이 실생활에서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는 교육부의 BK21 플러스 인력양성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BRL 기초연구실지원사업 및 지역대학우수연구자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 새만금 동서도로, 익산국토청으로 시설물 이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작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국도 12호선 노선 지정에 따라 국도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소속)과 협의해 이뤄졌다.

앞으로 동서도로(16.5km)는 제설장

비와 도로관리 인력 등을 갖춘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가 관리를 맡는다.

소병철 기반시설과장은 “동서도로가 원활한 유지보수와 함께, 겨울철 제설작업 등 기후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